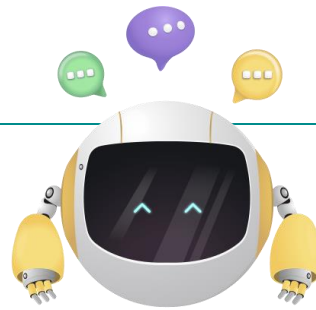


Tech&Stock Weekly

2026.06.19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사이버보안 & 데이터 인프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투자 불안감 여전히 높아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섹터가 5월 중순부터 2주 정도 짧은 급반등 보였으나 사이버보안을 제외하고 6월 들어와 다시 매도세 지속
- 5월 초까지 과매도 상황에서 단기적인 섹터 로테이션 효과와 스노우플레이크 실적 서프라이즈 등이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 투자 심리를 크게 견인하면서 6월초까지 급 반등.
- 사이버보안, 데이터 인프라 주요 종목은 실적을 통해 시가 위협이 아니라 강력한 성장 동력이란 점을 입증했으나 애플리케이션 SaaS 주요 종목은 AI 서비스 매출 기여가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을 확인
- 6월 2주차에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도 SaaS 매출이 기대치를 하회하고, 어도비도 매출과 EPS 상회폭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 불안감 다시 높아짐
- 스노우플레이크와 몽고DB는 실적을 통해 AI 수혜를 입증하면서 주가 급반등 했으나 전체 소프트웨어 섹터 영향으로 6월 초 이후 차익실현 등으로 하락
-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워크데이, 어도비 등 주요 SaaS 종목들은 개별 서비스 부문에서 AI 스타트업과의 경쟁, 과금 모델 변화 등 사업 구조적으로 과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AI 잠식론' 관련 의문 해소가 쉽지 않음. 따라서 단기적인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은 있으나 추세적 상승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판단

사이버보안 대표 종목들은 AI 도입 가속화의 대표 수혜주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상대적인 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 스노우플레이크, 몽고DB는 AI 수혜주로서 위치 확인.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심리 영향으로 하락할 경우 향후 분기 실적을 통해서 반등 기대 종목군

광 통신

SemiAnalysis의 CPO 지연 코멘트

- SemiAnalysis가 6월 9일 기관 고객 대상으로 "Powered Down, Lights Off"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음. 리포트 내용은 CPO는 scale-out 출하를 2027년까지 하향 조정하고, scale-up 양산은 2028~2029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 핵심
- 핵심 논거는 수율. 스위치 ASIC(Spectrum-6) 한 개에 옵티컬 엔진 32개를 같이 패키징하는데, 각 옵티컬 엔진 수율을 95%로 가정하면 0.95의 32제곱으로 수율이 계산되므로(0.95^32) 약 19%로 떨어진다는 것
- 다만 광통신 전체를 비판한 건 아니었음. CPO 지연이 오히려 pluggable과 NPO(near-packaged optics) 수요 창구를 연장한다며 중국 모듈사 Innolight와 Eoptolink를 수혜주로 지목
- 위 리포트가 공개된 뒤 당일 광통신주가 일제히 급락했음. AAOI -14%, COHR -11%, LITE -8%, CIEN -7%, GLW(코닝) -9%, MRVL -9% 수준으로 하락

InP 웨이퍼 공급망 정상화에 따른 매출 확대 사이클 지속 예상

- 중국은 2025년 2월 4일 InP 기판과 인듐 화합물을 수출 통제 품목에 넣었고, 이후 모든 주문 건마다 상무부 허가가 필요해졌음. 허가 처리에는 약 60영업일이 걸림. 중국이 전 세계 인듐 생산의 70%(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구조라 해당 통제가 광통신 CAPA의 핵심 병목으로 작용해왔음
- 가장 최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LITE는 일본 웨이퍼팩 캐파가 완전히 배정돼 있고, 핵심 부품 공급 제약 때문에 출하가 고객 수요보다 크게 낮다고 언급. COHR은 InP가 여러 분기째 자사의 핵심 제약이자 산업 전반의 제약이라고 발언
- 그런데 6월 15일 DIGITIMES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통제 대상이던 새 InP 기판 물량의 수출을 승인했고, 2026년 첫 물량이 5월 말 선적되며 광통신 시장의 캐파 제약이 완화
- JX금속은 6월 16일 InP 기판 생산능력 확대를 발표. 향후 4년간 최대 1,200억엔을 투자해 InP 기판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기존 Isohara 거점에 생산능력을 더해 전체 생산능력을 2030년까지 약 10배로 확대할 계획(현재 전사 매출 비중에서 InP 기판 매출 비중 1% → 10%로 확대 예상)
- 향후 InP 병목 해소에 따라 광 통신 기업들의 매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애플(AAPL.US): 메모리 비용 급등으로 가격 인상 예정

가격 인상 방침

- Tim Cook, 메모리·스토리지 칩 비용 급등 상쇄 위해 제품 가격 인상 불가피하다고 언급
- 그동안 고객에 비용 전가하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상황이 지속 불가능해졌다는 입장
- 인상 시점, 규모, 대상 제품은 비공개. iPhone 18은 9월 출시 예상(폴더블 포함), Mac-iPad는 더 빨리 인상 가능. 지난달 Mac Mini 가격은 이미 인상 반영
- TechInsights 추정은 Apple이 마진을 유지하면서 메모리·스토리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차기 iPhone Pro 모델 가격에 약 270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 이 경우 iPhone 18 Pro 가격은 최대 1,299 달러 가능

Apple 내부 사정 & 대응

- Siri 개편 등 AI 기능 확대로 추가 DRAM 필요. NAND 업그레이드는 원가 일부에 100~200달러 부과하며 이익원으로 활용해 옴
- Cook, 현금과 대차대조표 활용해 공급 확대 기여 의향. 단 자체 공장 건설은 배제
- 하이퍼스케일러는 막대한 현금 선지급 + 3~5년 계약으로 물량 확보 중. Apple은 절제된 지출 이력상 따라가기 불확실
- Apple은 메모리, 스토리지에 연간 200~300억 달러대 지출(세계 최대 고객 중 하나). 과거엔 최저가 압박했으나 이제는 줄 서는 처지
- Cook: 40년 공급망 경력에서 최근 6개월 같은 가격 변동 처음,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로 표현

스페이스X(SPCX.US): 내부자 매도 제한 단계적 조기 해제 일정

- 내부자 매도 제한은 단계적으로 조기 해제되는 구조.
- 첫번째 해제는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 후 두번째 정규 거래일에 보유 지분 20%가 해제되며, 만약 실적 발표 직전 10거래일 중 5거래일 이상 주가가 IPO 공모가 대비 30% 이상 거래된 경우에는 10% 추가로 해제되어, 첫 해제 물량은 최대 30%까지 확대
- 이후 상장일 기준 70일, 90일, 105일, 120일, 135일이 경과하는 시점마다 각 7%씩, 총 35%가 순차적으로 해제
- 2026년 3분기 실적 발표 후 추가 28% 해제. 단, Elon Musk와 일부 주요 투자자는 조기 해제 대상에서 제외
- 시장에서는 다수의 기관투자자와 임원급 인사이드는 보유 지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다만 일반 직원들이 보유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는데, 단계적 해제 구조는 매도 물량의 규모와 타이밍을 분산시켜 시장이 이를 소화할 시간을 확보해 주는 장치로 기능할 전망
- 상장을 통해 유통된 주식은 5.56억 주이고 주판사 초과배정 옵션으로 8,330만 주 추가 공급. 추가 물량 포함해도 현재 유통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130.76억 주)의 약 5%에 불과
- 2분기 실적 발표 후 20% 해제 시 약 9.11억 주, 30% 해제 시 약 13.67억 주가 매도 제한 해제 대상
- 실적발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시장에서는 8월 중 발표 예상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PJM의 패스트트랙 승인. 그리드 연결 최대 7년에서 10개월로 단축

- FERC는 PJM이 제안한 EIT(Expedited Interconnection Track; 송전망 신속 연계 트랙)를 최종 승인
- 기존 전력망 연결 방식과는 구분되는 일시적인 프로세스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긴급한 전력 수요를 신속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골자
- 계약 체결 후 3년 안에 실제 상업 운전을 시작해 전력 생산이 가능한 발전소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부터 전력망 연결 계약(GIA)까지 걸리는 시간을 10개월로 단축
- PJM은 연간 최대 10개의 프로젝트를 심사할 예정
- -PJM 소속의 미국 최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인 북부 버지니아는 선착순 방식의 심사 제도와 IRA 등으로 급증한 대기열로 인해 그리드 연결 대기가 최대 7년까지 지연된 상황에서 신속한 상업 운전이 가능한 발전원에 대해서는 10개월로 대폭 단축된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것
- 7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7년 말 종료될 예정

빠르게 대량으로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원에 프리미엄 부여 합리적

- Calpine 인수 이후 CEG의 시장별 캐파는 PJM 49%, ERCOT 23%, CAISO 10% 등으로 추정
- 인수 이전 PJM 비중이 거의 70%였지만 Calpine의 ERCOT 비중이 높아(43%) 조정. 다만 ERCOT 에서도 이미 작년 6월 상원법안 6호를 통과시키며 비슷한 기초를 이어가고 있어 시장 관점에서는 PJM과 ERCOT을 주요 시장으로 하는 CEG 입장에서 모두 유리
- CEG는 이미 Talen, CPower, Google, Amazon, Microsoft와 연합체를 구성해 전력 시장 개척을 주도

- 이번 EIT 승인으로 Crane 프로젝트(Microsoft와의 원전 재가동 PPA)는 2027년 이전 가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져, 9월부터는 용량 부족 대안으로 만든 RBP 양자계약 체결도 시작될 예정
- ‘빠르게 대량으로’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원에 프리미엄 부여가 합리적인 시점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5년 만에 첫 회사채 발행

- 엔비디아가 6월 15일 SEC 파일링을 통해 2021년 이후 첫 회사채 발행을 공시하며 최소 \$20B 조달을 목표로 제시. 제 발행은 초기 목표 \$20B에서 상향되어 \$25B 규모로 가격이 결정됐고, 발행 규모의 3배가 넘는 약 \$85B의 주문이 몰리며 강한 투자 수요를 확인

애플(AAPL.US): 플래그십 가격 인상 공식화

- 애플 CEO 팀 쿡이 WSJ 인터뷰에서 메모리·스토리지 가격 급등을 감내해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으려 노력해왔으나 상황이 'unsustainable'한 수준이 됐다며 가격 인상이 'unavoidable'하다고 언급. 특히 DRAM 부족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메모리 가격·공급이 합리적 수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

아마존(AMZN.US): 자체 AI 칩 Trainium의 외부 판매를 검토

- 아마존의 AI 책임자 피터 디산티스가 블룸버그에 AWS가 자사 AI 칩 Trainium을 데이터센터용으로 타사에 판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잠재 구매자는 특정하지 않았음

메타(META.US): Crusoe와 약 1.6GW 컴퓨팅 캐파 신규 계약 체결

- 메타가 데이터센터 개발사 Crusoe로부터 AI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신규 계약을 체결, 텍사스 Childress와 미주리 Warrenton 두 곳의 데이터센터에서 컴퓨팅 캐파를 매입하기로 했고 두 사이트 합산 약 1.6GW 규모를 공급받을 예정. 금액과 납기는 미정

인텔(INTC.US): 최선단 18A-P 노드 생산 개시

- 호놀룰루 VLSI 심포지엄에서 18A-P가 'risk production'이라는 초기 생산 단계에 진입했다고 발표. 이는 본격 양산 전 풀 웨이퍼를 생산해 결함률·성능·변동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저물량 제조 단계

앤스로픽(비상장): 아마존 CEO 앤디 제시가 Fable 5-Mythos 5 수출통제 차단 의도화

- WSJ는 아마존 CEO 앤디 제시(Andy Jassy)가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등 정부 관계자에게 아마존 연구진이 앤스로픽의 Claude Fable 5를 이용해 사이버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전달했고, 정부가 이후 Fable 5와 Mythos 5에 수출통제 차단을 부과해 6월 12일 두 모델의 전 세계 접근이 끊긴 것으로 보도 함

오픈AI(비상장): 트랜스포머 공동창안자 노암 셰이저 영입

- 오픈AI가 IPO를 앞두고 같은 주제 두 거물을 영입. 구글 딥마인드의 AI 거장 노암 셰이저와 전 트럼프 백악관 AI 정책당국자 딘 볼을 팀에 합류시킴

우주/로봇

알파벳(GOOG.L.US): 3,871대 자발적 소프트웨어 리콜

- 웨이모는 로봇택시가 폐쇄된 프리웨이 공사구역에 속도를 유지한 채 진입하는 소프트웨어 결함을 이유로 5세대 자율주행시스템(ADS)을 탑재한 재규어 I-Pace 3,871대에 대한 자발적 소프트웨어 리콜을 美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고

스페이스X(SPCX.US): IPO 6일 만에 Cursor를 \$60B 전량 주식교환으로 인수

- 스페이스X가 AI 코딩 스타트업 Cursor를 \$60B 규모 전량 주식 교환으로 인수하는 데 정식 합의. Cursor 투자자는 화요일 규제 파일링에 따라 내재가치 \$60B를 기준으로 스페이스X 주식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됨. 거래는 3분기 클로징 예정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 데이터 인프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투자 불안감 여전히 높아

- 소프트웨어 섹터가 5월 중순부터 2주 정도 짧은 급반등 보였으나 사이버보안을 제외하고 6월 들어와 다시 매도세 지속
- 5월 초까지 과매도 상황에서 단기적인 섹터 로테이션 효과와 스노우플레이크 실적 서프라이즈 등이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 투자 심리를 크게 견인하면서 6월초까지 급 반등.
- 사이버보안, 데이터 인프라 주요 종목은 실적을 통해 시가 위험이 아니라 강력한 성장 동력이란 점을 입증했으나 애플리케이션 SaaS 주요 종목은 AI 서비스 매출 기여가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을 확인
- 6월 2주차에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도 SaaS 매출이 기대치를 하회하고, 어도비도 매출과 EPS 상회폭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 불안감 다시 높아짐
- 스노우플레이크와 몽고DB는 실적을 통해 AI 수혜를 입증하면서 주가 급반등 했으나 전체 소프트웨어 섹터 영향으로 6월 초 이후 차익실현 등으로 하락
-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워크데이, 어도비 등 주요 SaaS 종목들은 개별 서비스 부문에서 AI 스타트업과의 경쟁, 과금 모델 변화 등 사업 구조적으로 과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AI 잠식론' 관련 의문 해소가 쉽지 않음. 따라서 단기적인 구간에서 반등 가능성은 있으나 추세적 상승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판단
- 사이버보안 대표 종목들은 AI 도입 가속화의 대표 수혜주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상대적인 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 스노우플레이크, 몽고DB는 AI 수혜주로서 위치 확인.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심리 영향으로 하락할 경우 향후 분기 실적을 통해서 반등 기대 종목군

광 통신

SemiAnalysis 발 광 통신 주가 하락과 회복

SemiAnalysis의 CPO 지연 코멘트

- SemiAnalysis가 6월 9일 기관 고객 대상으로 "Powered Down, Lights Off"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음. 리포트 내용은 CPO는 scale-out 출하를 2027년까지 하향 조정하고, scale-up 양산은 2028~2029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 핵심
- 핵심 논거는 수율. 스위치 ASIC(Spectrum-6) 한 개에 옵티컬 엔진 32개를 같이 패키징하는데, 각 옵티컬 엔진 수율을 95%로 가정하면 0.95의 32제곱으로 수율이 계산되므로(0.95^32) 약 19%로 떨어진다는 것
- 다만 광통신 전체를 비판한 건 아니었음. CPO 지연이 오히려 pluggable과 NPO(near-packaged optics) 수요 창구를 연장한다며 중국 모듈사 Innolight와 Eoptolink를 수혜주로 지목
- 위 리포트가 공개된 뒤 당일 광통신주가 일제히 급락했음. AAOI -14%, COHR -11%, LITE -8%, CIEN -7%, GLW(코닝) -9%, MRVL -9% 수준으로 하락

엔비디아와 외사들의 반박에 의한 주가 회복

- 6월 9일 Tae Kim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엔비디아 네트워킹 수석부사장 Gilad Shainer는 CPO에 대해 “출하 준비가 됐다”, Lambda가 CPO 스위치를 받았으며, “올해 하반기 CPO를 램프할 것”이라고 언급. 또 CPO는 scale-out부터 시작하고, Feynman 세대에서는 scale-up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음
- 모건스탠리는 6월 10일 CPO의 2027년 단기 물량이 시장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함. 하지만 단기 침투율 조정에 불과하며, AI 데이터센터 광통신 로드맵 전면 지연은 아니라고 주장
- JP모건은 6월 11일 COHR과 LITE에 대한 Overweight를 유지하면서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 컴퓨텍스(Computex) 현장에서 수집한 투자자 피드백/채널 체크 결과, 엔비디아의 CPO 램프가 일정보다 뒤쳐진 게 아니라 오히려 앞서 가고 있다고 판단

InP 웨이퍼 공급망 정상화에 따른 매출 확대 사이클 지속 예상

- 중국은 2025년 2월 4일 InP 기판과 인듐 화합물을 수출 통제 품목에 넣었고, 이후 모든 주문 건마다 상무부 허가가 필요해졌음. 허가 처리에는 약 60영업일이 걸림. 중국이 전 세계 인듐 생산의 70%(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구조라 해당 통제가 광통신 CAPA의 핵심 병목으로 작용해왔음
- 가장 최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LITE는 일본 웨이퍼팩 캐파가 완전히 배정돼 있고, 핵심 부품 공급 제약 때문에 출하가 고객 수요보다 크게 낮다고 언급. COHR은 InP가 여러 분기째 자사의 핵심 제약이자 산업 전반의 제약이라고 발언
- 그런데 6월 15일 DIGITIMES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통제 대상이던 새 InP 기판 물량의 수출을 승인했고, 2026년 첫 물량이 5월 말 선적되며 광통신 시장의 캐파 제약이 완화
- X금속은 6월 16일 InP 기판 생산능력 확대를 발표. 향후 4년간 최대 1,200억엔을 투자해 InP 기판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기존 Isohara 거점에 생산능력을 더해 전체 생산능력을 2030년까지 약 10배로 확대할 계획(현재 전사 매출 비중에서 InP 기판 매출 비중 1% → 10%로 확대 예상)
- 향후 InP 병목 해소에 따라 광 통신 기업들의 매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애플

상장 국가	미국	최근 주가 추이	(USD) 400 300 200 100 0 25.6 25.8 25.10 25.12 26.2 26.4 26.6
산업	빅테크		
시가총액(십억달러)	4,375		

애플(AAPL.US): 메모리 비용 급등으로 가격 인상 예정

가격 인상 방침

- Tim Cook, 메모리·스토리지 칩 비용 급등 상쇄 위해 제품 가격 인상 불가피하다고 언급
- 그동안 고객에 비용 전가하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상황이 지속 불가능해졌다는 입장
- 인상 시점, 규모, 대상 제품은 비공개. iPhone 18은 9월 출시 예상(폴더블 포함), Mac iPad는 더 빨리 인상 가능. 지난달 Mac Mini 가격은 이미 인상 반영
- Technisights 추정은 Apple이 마진을 유지하면서 메모리·스토리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차기 iPhone Pro 모델 가격에 약 270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 이 경우 iPhone 18 Pro 가격은 최대 1,299 달러 가능

메모리 수급 차질 & 공급 업체, 정책 변수

- 메모리(DRAM)·스토리지(NAND)는 AI 서버가 빠르게 흡수, Apple조차 공급 확보 난항
- Google, Microsoft, Meta, Amazon capex 증액 발표 이후 DRAM과 NAND 가격 모두 4배 상승. 2027년까지 상승 지속 전망
- Cook은 특히 DRAM에 초점, AI 서버용 HBM 할당 증가를 지목
- DRAM 웨이퍼 capacity 2027년까지 30% 증가하나, AI용 우선으로 소비자용 웨이퍼는 수요 대비 최대 15% 부족
- HP-Dell-Nintendo 등 이미 가격 인상. 산업 협회, Treasury-Commerce 장관에 메모리 과다 할당 항의 서한 발송
- 중국 메모리 업체 거러엔 라이선스 필요 가능성. Cook은 "모든 공급을 살펴봐야 한다"며 규제 완화에 열린 입장

Apple 내부 사정 & 대응

- Siri 개편 등 AI 기능 확대에 추가 DRAM 필요. NAND 업그레이드는 원가 일부에 100~200달러 부과하며 이익원으로 활용해 옴
- Cook, 현금과 대차대조표 활용해 공급 확대 기여 의향. 단 자체 공장 건설은 배제
- 하이퍼스케일러는 막대한 현금 선지급 + 3~5년 계약으로 물량 확보 중. Apple은 절제된 지출 이력상 따라가기 불확실
- Apple은 메모리, 스토리지에 연간 200~300억 달러대 지출(세계 최대 고객 중 하나). 과거엔 최저가 압박했으나 이제는 줄 서는 처지
- Cook: 40년 공급망 경력에서 최근 6개월 같은 가격 변동 처음,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로 표현

스페이스X

상장 국가

미국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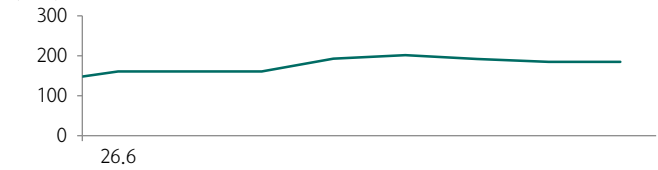
빅테크

시가총액(십억달러)

2,437

최근 주가 추이

(USD)



스페이스X(SPCX.US): 내부자 매도 제한 단계적 조기 해제 일정

- 내부자 매도 제한은 단계적으로 조기 해제되는 구조.
- 첫번째 해제는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 후 두번째 정규 거래일에 보유 지분 20%가 해제되며, 만약 실적 발표 직전 10거래일 중 5거래일 이상 주가가 IPO 공모가 대비 30% 이상 거래된 경우에는 10% 추가로 해제되어, 첫 해제 물량은 최대 30%까지 확대
- 이후 상장일 기준 70일, 90일, 105일, 120일, 135일이 경과하는 시점마다 각 7%씩, 총 35%가 순차적으로 해제
- 2026년 3분기 실적 발표 후 추가 28% 해제. 단, Elon Musk와 일부 주요 투자자는 조기 해제 대상에서 제외
- 시장에서는 다수의 기관투자자와 임원급 인사이드는 보유 지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다만 일반 직원들이 보유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는데, 단계적 해제 구조는 매도 물량의 규모와 타이밍을 분산시켜 시장이 이를 소화할 시간을 확보해 주는 장치로 기능할 전망
- 상장을 통해 유통된 주식은 5.56억 주이고 주관사 초과배정 옵션으로 8,330만 주 추가 공급. 추가 물량 포함해도 현재 유통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130.76억 주)의 약 5%에 불과
- 2분기 실적 발표 후 20% 해제 시 약 9.11억 주, 30% 해제 시 약 13.67억 주가 매매 제한 해제 대상
- 실적발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시장에서는 8월 중 발표 예상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콘스텔레이션에너지(CEG.US): 합법적 새치기

PJM의 패스트트랙 승인. 그리드 연결 최대 7년에서 10개월로 단축

- FERC는 PJM이 제안한 EIT(Expedited Interconnection Track; 송전망 신속 연계 트랙)를 최종 승인
- 기존 전력망 연결 방식과는 구분되는 일시적인 프로세스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긴급한 전력 수요를 신속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골자
- 계약 체결 후 3년 안에 실제 상업 운전을 시작해 전력 생산이 가능한 발전소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부터 전력망 연결 계약(GIA)까지 걸리는 시간을 10개월로 단축
- PJM은 연간 최대 10개의 프로젝트를 심사할 예정
- -PJM 소속의 미국 최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인 북부 버지니아는 선착순 방식의 심사 제도와 IRA 등으로 급증한 대기열로 인해 그리드 연결 대기가 최대 7년까지 지연된 상황에서 신속한 상업 운전이 가능한 발전원에 대해서는 10개월로 대폭 단축된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것
- 7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7년 말 종료될 예정

PJM의 전례없이 빠른 규제 속도

- PJM의 데이터센터 캐파 비중은 31%로 미국 최대의 데이터센터 밀집 시장이며 최소 2030년까지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2위 ERCOT 20%).
- PJM의 규제는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전
- 2026년 1월 공개된 이사회 결정 사안(CIFP)은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1) 6월 10일 승인된 EIT, 2) 자체 신규 발전원 확보(BYONG), 3) 온사이트 발전이 없는 데이터센터라도 일단 전력망에 연결하고 비상 상황시 강제 차단(Connect-and-manage) 등이 이에 해당

빠르게 대량으로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원에 프리미엄 부여 합리적

- Calpine 인수 이후 CEG의 시장별 캐파는 PJM 49%, ERCOT 23%, CAISO 10% 등으로 추정
- 인수 이전 PJM 비중이 거의 70%였지만 Calpine의 ERCOT 비중이 높아(43%) 조정. 다만 ERCOT 에서도 이미 작년 6월 상원법안 6호를 통과시키며 비슷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시장 관점에서는 PJM과 ERCOT을 주요 시장으로 하는 CEG 입장에서 모두 유리
- CEG는 이미 Talen, CPower, Google, Amazon, Microsoft와 연합체를 구성해 전력 시장 개혁을 주도
- 이번 EIT 승인으로 Crane 프로젝트(Microsoft와의 원전 재가동 PPA)는 2027년 이전 가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져. 9월부터는 용량 부족 대안으로 만든 RBP 양자계약 체결도 시작될 예정
- ‘빠르게 대량으로’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원에 프리미엄 부여가 합리적인 시점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5년 만에 첫 회사채 발행

- 엔비디아가 6월 15일 SEC 파일링을 통해 2021년 이후 첫 회사채 발행을 공시하며 최소 \$20B 조달을 목표로 제시. 제 발행은 초기 목표 \$20B에서 상향되어 \$25B 규모로 가격이 결정됐고, 발행 규모의 3배가 넘는 약 \$85B의 주문이 몰리며 강한 투자 수요를 확인
- 구조는 만기 2~30년의 7개 tranche로 구성됐고, 최장물 spread는 미 국채 대비 약 0.9%p 수준이며 최장 만기는 2056년까지 연장
- 이번 회사채 발행은 자금 수요 때문이 아니라 우호적 신용 환경에서 장기 저리 자본을 띠면서 유동성을 보존하는 전략

애플(AAPL.US): 플래그십 가격 인상 공식화

- 애플 CEO 팀 쿡이 WSJ 인터뷰에서 메모리·스토리지 가격 급등을 감내해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으려 노력해왔으나 상황이 'unsustainable'한 수준이 됐다며 가격 인상이 'unavoidable'하다고 언급. 특히 DRAM 부족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메모리 가격·공급이 합리적 수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
- 이는 아이폰 15 Pro가 2020년 아이폰 12 Pro와 동일한 \$999에 출시될 만큼 부품가 변동에도 수년간 플래그십 가격을 고정해온 전략적 기조와의 단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아마존(AMZN.US): 자체 AI 칩 Trainium의 외부 판매를 검토

- 아마존의 AI 책임자 피터 디산티스가 블룸버그에 AWS가 자사 AI 칩 Trainium을 데이터센터용으로 타사에 판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잠재 구매자는 특정하지 않았음
- 해당 내용은 이미 4월초 주주서한에서 밝힌 바 있음. CEO 재시는 당시 서한에서 칩 사업이 독립 사업체로서 올해 생산분을 AWS와 제3자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run rate가 약 \$50B에 이를 것이며, 수요가 워낙 커 향후 락 단위로 제3자에 판매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한 바 있음

메타(META.US): Crusoe와 약 1.6GW 컴퓨팅 캐파 신규 계약 체결

- 메타가 데이터센터 개발사 Crusoe로부터 AI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신규 계약을 체결, 텍사스 Childress와 미주리 Warrenton 두 곳의 데이터센터에서 컴퓨팅 캐파를 매입하기로 했고 두 사이트 합산 약 1.6GW 규모를 공급받을 예정. 금액과 납기는 미정

인텔(INTC.US): 최선단 18A-P 노드 생산 개시

- 호놀룰루 VLSI 심포지엄에서 18A-P가 'risk production'이라는 초기 생산 단계에 진입했다고 발표. 이는 본격 양산 전 풀 웨이퍼를 생산해 결함률·성능·변동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저물량 제조 단계
- 스펙 측면에서 18A-P는 표준 18A 대비 성능 9% 향상 또는 전력 소비 18% 절감을 제공하며 기존 18A 인프라와 완전 호환되고 최소 20% 더 높은 내열성을 갖춤

앤스로픽(비상장): 아마존 CEO 앤디 제시가 Fable 5·Mythos 5 수출통제 차단의 도화선

- WSJ는 아마존 CEO 앤디 제시(Andy Jassy)가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등 정부 관계자에게 아마존 연구진이 앤스로픽의 Claude Fable 5를 이용해 사이버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전달했고, 정부가 이후 Fable 5와 Mythos 5에 수출통제 차단을 부과해 6월 12일 두 모델의 전 세계 접근이 끊긴 것으로 보도 함
- 아마존 측은 "정부가 잠재적 보안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일은 드물지 않다"면서도 "논의의 세부 내용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음

오픈AI(비상장): 트랜스포머 공동창업자 노암 셰이저 영입

- 오픈AI가 IPO를 앞두고 같은 주에 두 거물을 영입. 구글 딥마인드의 AI 거장 노암 셰이저와 전 트럼프 백악관 AI 정책당국자 딘 볼을 팀에 합류시킴.
- 셰이저는 2017년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도입한 기념비적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의 공동저자임. 2000년부터 구글에 몸담았으며 Character AI 공동창업을 위해 3년간 떠났던 시기를 제외하면 줄곧 구글에 있었고 2년 전 구글이 \$2.7B 규모 딜로 그를 재영입
- 딘 볼은 작년 백악관에서 단기간 근무하며 America's AI Action Plan 발간을 담당. 이후 싱크탱크 Foundation for American Innovation에서 근무한 바 있음

우주/로봇

알파벳(GOGL.US): 3,871대 자발적 소프트웨어 리콜

- 웨이모는 로보택시가 폐쇄된 프리웨이 공사구역에 속도를 유지한 채 진입하는 소프트웨어 결함을 이유로 5세대 자율주행시스템(ADS)을 탑재한 재규어 I-Pace 3,871대에 대한 자발적 소프트웨어 리콜을 美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고
- 5월 19일부로 전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빼고 일반도로 운행만 유지한 가운데 수정안은 아직 개발 중이며 공항 연계 노선을 포함한 프리웨이 서비스는 추가 공지 시까지 중단된 상태로 확인
- 근거가 된 사고는 최소 13건으로 4월 피닉스에서 6건(진입로 폐쇄 표지를 지나쳐 공사구역으로 진입)과 5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 7건(인접 차로 콘 사이를 통과해 작업이 진행 중인 공사 차로로 진입)이 집계됐으나 탑승객 부상은 없었음

스페이스X(SPCX.US): IPO 6일 만에 Cursor를 \$60B 전량 주식교환으로 인수

- 스페이스X가 AI 코딩 스타트업 Cursor를 \$60B 규모 전량 주식 교환으로 인수하는 데 정식 합의. Cursor 투자자는 화요일 규제 파일링에 따라 내재가치 \$60B를 기준으로 스페이스X 주식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됨. 거래는 3분기 클로징 예정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연)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1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연)는 2026년 6월 19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